

후천면역결핍증후군 환자에서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에 의한
면역재건 중 발생한 거대세포바이러스 장관염과 공장 천공 1예

국립의료원 내과¹ 국립의료원 외과²

*최세호¹ · 강효성¹ · 이성호¹ · 이종현¹ · 신경운¹ · 남승우¹ · 황재관² · 신형식¹

HIV 양성환자의 치료에 있어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의 도입은 거대세포바이러스를 포함한 여러 기회감염을 유의할만한 수준으로 감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후천면역결핍증후군로의 진행 및 사망률의 감소를 가져왔다.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 후 성공적인 면역재건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임상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현상을 면역재건 증후군이라한다. 저자들은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로 성공적인 면역재건중 공장 천공을 동반한 장관염의 형태로 나타난 거대세포바이러스 관련 면역재건 증후군의 1예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중례** : 64세 남자환자로 내원 1개월 전부터 발생한 노작성 호흡곤란과 마른 기침을 주소로 폐결핵과 폐포자충 폐렴 진단하에 항결핵 병용요법과 Bactrim 치료를 받았다. 내원당시 복부검진에서 이상소견이나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은 호소하지 않았다. CD4+ T 림프구수는 17 cells/uL, HIV RNA 수치는 110,000 RNA copies/ml로 내원 3주후부터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시작하였다.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 27일째 환자는 갑자기 39℃의 발열과 함께 복통을 호소하였다. 신체검진에서 복부경직 소견이 관찰되었다. 복부단순 엑스선사진에서 횡경막하 유리가스가 관찰되어 장천공에 의한 급성 복막염으로 응급개복술을 시행하였다. 응급개복후 관찰한 결과 공장부위 천공이 관찰되어 천공부위를 포함하여 8 cm 가량 분절절제 후 단단분합을 시행하였다. 절제부분 병리검사서 핵내봉입체를 포함하고 있는 세포가 관찰되어 거대세포바이러스 공장염 천공으로 진단되었고 수술 5일 후 시행한 대장내시경상에서도 전대장에 걸쳐 다발성의 미란이 관찰되어 시행한 병리검사서 거대세포바이러스 대장염으로 진단되었다. 복통이 발생하였을 당시 CD4+ T 림프구수는 50 cells/uL, HIV RNA 수치는 200 RNA copies/mL로 입원 당시보다 면역상태가 호전되어있어 거대세포바이러스 관련 면역재건후 증후군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환자는 HAART 치료를 유지하며 2주간 ganciclovir(10 mg/kg/day) 및 hydrocortisone(300 mg/d) 정주 후 임상양상이 호전되었다. 경구용 prednisone 10mg/d으로 감량 후 퇴원하였고 현재는 HAART 및 항결핵병용요법 중으로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의 재발은 없었다.

Lemierre's syndrome: one case of postanginal sepsis

Hong-ik Hospital, Internal Medicine and Radiology¹

Young Tak Seo*, Mi Jin Kim, Ji Hoon Kim, Byung Wook Ha, Hyo Sun Choi¹, Young Hwan Ham

Lemierre syndrome is a rare disease characterized by internal jugular vein thrombosis and septic emboli, and it usually follows an acute oropharyngeal infections. This syndrome is seen less frequently in the current age of antibiotics, however, physicians must be aware of the syndrome as initiation of prompt antibiotics therapy, including anerobic coverage. We report a case of Lemierre syndrome in a young healthy female adolescent who had an acute pharyngotonsillitis and septic pulmonary embolism.

